

채무승인 후 시효이익 포기 추정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 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위 추정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 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

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종전 추정법리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추정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됐고, 법원은 채무승인이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 채무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

K제약바이오, 따로 또 같이… K신약 위한 활로 찾기



기자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분할, 합병, 신설 등 ‘따로 또 같이’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삼성에프스홀딩스를 신설한다.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는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셀런스’ 등도 새롭게 설치됐다. 삼성에프스홀딩스는 우선 기존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해 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한다.

K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셀트리온그룹은 ‘통합 셀트리온’ 전략을 펼친다. 2023년 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남은 과제인 가운데, 2024년 말에는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설립됐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이며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로부터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의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진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사업 추진 배경을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 등 북미 지역 현지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진과 구축한 파트너십이 신사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최근 개봉 4주차에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탈환하며 장기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는 재취업을 노린 남자 주인공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내용을 다룬다. ‘가짜 회사’를 꾸며 모집공고를 내고 업계 전문성과 독보적인 이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파악해 접근한다. 실제로 남자 주인공과 이 지원자들은 유망 기업 면접에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 합격자들이다.

충격적인 설정이지만 경쟁에서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약개발처럼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막대한 자본이 얹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쟁보다는 열린 결말이 이뤄져야 한다. 위탁생산과 신약개발, 자회사와 모회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기업 환경에도 모두의 꿈인 ‘K제약바이오’ 위상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8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마음이 편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48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60년생 길을 다닐 때 핸드폰보다가 사고 날까 두렵다. 72년생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투기보다 실력으로 승부를. 84년생 음주하지 말아야.	
 소	37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49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깔끔하게 된다. 61년생 체면치레가 손실이 커지니 거품을 줄이자. 7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지시 받는다고 부끄러워 마라. 8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호랑이	38년생 지인의 이간질을 조심해야 할 하루이다. 50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62년생 승진이 되니 천국에 온 듯. 74년생 인생은 언제나 불행 중 다행이다. 86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라.	
 토끼	39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51년생 머리로 믿지 말고 노력해야. 63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75년생 나 자신을 낮추고 직장 사람을 공경해야 할 때. 87년생 겨울 속의 얼굴은 천사인데 다시 보면 마음이 악마.	
 양	40년생 여행을 떠나려면 상비약을 챙겨라. 52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챙겨라. 64년생 유쾌하고 상쾌하니 능률도 두 배로 증가. 76년생 슬프고 분하여 복받쳐 오른다. 88년생 마음은 의욕적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바람	41년생 자녀의 해외파견소식에 마음은 들뜨고. 53년생 매사에 나의 일이라 생각해보자. 6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뒷날까지 말고 미리 거절하라. 77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먼저 세우라. 89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이동.	
 말	42년생 나이 들어 돈거래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사진다. 54년생 이사하려 하나 너무 많이 올라서. 66년생 이직이 어려우니 인내심을. 78년생 싫은 일을 당하여도 내색조차 할 수 없다. 90년생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고양이	43년생 당구삼년페풍월(堂狗三年吠風月). 55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67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해야 미래가 평온. 79년생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한탄하는 인생. 91년생 저축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할 줄	
 원숭이	44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되니 계단 조심. 56년생 조상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도. 68년생 친구는 서로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평소에도 돈독히 지내도록. 80년생 암탉이 울어 결국 집안이 망했다는데. 92년생 이성간 삼각관계를 유의해야.	
 닭	45년생 집 안 청소로 열정이 넘치는 하루. 57년생 회식 때 소지품 조심. 69년생 과음하여 머리 아프지 않게 적당히. 81년생 부모는 자식을 싸움에 노아불사(老而不死)생각만 가득. 9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고 왜 했겠는가.	
 개	46년생 경쟁력에서 창의력이 빛나는 날. 58년생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듯. 70년생 성과가 더더욱 계속 도전하라. 82년생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놓고 월가왕부하지 마라. 94년생 산소 이장 문제로 회의가 펴	
 돼지	47년생 과거 재능을 발전시키니 유용하다. 59년생 동업자와는 양보하고 상부상조로 인내. 71년생 일을 만들지 마라. 83년생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95년생 참아도 이해해도 배우자 덕이 없어 괴로움이 펼쳐지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신분은 있는가

노예근성.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신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힘의 원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노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노예가 되기 싫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도 있으니 노예근성에 대해 마구 말할 일은 아니다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은 있으나 그것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자는 천성적으로 노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물리적 힘으로 노예가 된 경우보다 정신적으로 주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짐작해본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애초에 노예였다. 어린 소년 시절, 그의 주인이었던 이가 다리를 비틀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고된 노동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철학책을 읽었으며 나중에는 스토아철학의 스승 반열에까지 올랐다. 또한 자기의 지적 능력과 철학적 사고 덕분에 로마황제의 벗이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즉, 그가 노예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능력 밖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선택지인 좋아하는 철학책을 읽으며 사변을 깊게 닦아나갔다. 결국에는 존경받는 스토아학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당시 브라만들이 자신들 신분의 고귀함을 내세우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의 고귀함은 타고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바른 지에 달렸으며, 따라서 천민인 수드라라 할 지라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면 그가 곧 브라만이며 고귀한 사람이다.”라 했는데 성인의 통찰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